

도내 특수학교 전공과 취업률 상승세

지난달 말 기준 55%로 지난해보다 10.4%p 높아 특수교육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주요인

도내 특수학교 취업률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월 말 기준 도내 9개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91명 중 50명이 취업에 성공, 5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4%p 높아진 수치다.

이에 따르면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은 2022년 40.7%(83명 중 33명 취업), 2023년 44.6%(92명 중 41명 취업)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취업률 상승 원인으로는 △특수교육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내 일자리사업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운영 등 학교·교육청·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진로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해 △바리스타 △스킨케어 △정리수납 △제과분야 △드론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올해도 현장 교원,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내일을 위한

장애학생 윈윈 지역협업체'를 적극 가동해 일자리 발굴과 장애학생 현장 실습 활성화 및 진로직업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비용도 1인당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사업을 학교 밖으로까지 다변화하는 한편,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실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옛 자립원 부지에 교육·복지·고용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인 '직업중점형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의취업 지원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 활성화와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중고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내달 6일, 시험장 6개 권역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누리집(www.je.go.kr)을 통해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은 각각 전주온빛중학교, 군산중학교, 익산지원중학교, 생고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 송천중고등학교, 전주교도소 등이다. 각 지역 지원자는 해당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부터는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6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결격자를 제외한 최종 지원자 수는 초졸 67명, 중졸 181명, 고졸 725명 등 총 973명이며, 온라인 지원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s://kged.go.kr)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응시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초졸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과 필요시 도시락 등을 준비해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험은 4월 6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합격자는 5월 9일 교육청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온누리홀에서 전주비전대학교와 공동으로 제6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강연

전주대, 제6차 미래전북포럼... 비전대와 공동 기초과학연구원 하성도 부원장 초청 강연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1일 온누리홀에서 전주비전대학교와 공동으로 제6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국가가 설립한 종합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사를 초청해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강연은 기초과학연구원의 하성도 부원장의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 기초과학연구원 소개'라는 주제로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현택환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의 '어떻게 세계적인 연구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현택환 석좌교수는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운법'을 개발해 매년 노벨과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부총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유수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인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인지도를 높여 우리나라에서 도 국민의 오랜 염원인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1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프랑스 소르본뉴벨대학교와 'AI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AI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AI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도전·대응'

전북대, 프랑스 소르본뉴벨대학교 AI 공동컨퍼런스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1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프랑스 소르본뉴벨대학교와 'AI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AI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양오봉 총장과 프랑스 소르본뉴벨대학교 프랑수아즈 라보카 대외협력부총장, 로아나 가예

롱 대학교육·생활 부총장, 알베토 호델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교수 등이 참석, AI의 발전이 우리사회의 윤리, 교육,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심도 높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양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학생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에 개최한 AI 공동컨퍼런스로 우리 전북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특히 유학생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해외 대학과 학문 분야별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해 6월 소르본뉴벨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MOU)을 갱신했으며, 2024년 2월 1일 학생교류협정(MOA)을 체결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자율전공학부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학부장 이석관 교수, 스마트 모빌리티)는 지난 20일 종합교육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교과목 담당 박규연 책임교수(음악과)의 진행으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우리나라 해군 단독으로 작전을 펼쳐 무사히 성공으로 이끈 조영주 제독을 모셔 대한민국 해군과 참해부대, 해적의 실체, 그리고 야만인 여명자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박 교수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새로 신설된 교양 교과목인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첫 수업의 특강자로 우리나라 해군의 자랑스러운 영웅 조영주 제독을 모시게 돼 무척 영광스러웠다"며 "제독님의 생생한 작전 스토리와 진솔한 삶의 철학이 학생들의 인생과 비전 설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인생설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수강생은 물론, 재학생, 교직원 및 군산시민들에게 명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자 기획된 교과목이다.

특히 2023학년도에 신설된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설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2024학년도부터는 '아동용 약놀이교육지도사', '스마트교본엔지니어' 마이크로디그리 교육 과정을 신설해 특색화 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재학생들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2차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성료

호원대학교 K-미래인재대학은 23일 전북 도민을 위한 2차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2차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8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비학위과정은 △K-뷰티소재학과의 '네일아트살롱실무' (이선영 교수), '두피&모발케어' (김재복 교수) △K-푸드창업학과의 '한식메뉴개발사' (김진욱 교수), '모던한식디저트' (김은정 교수) △K-콘텐츠제작학과의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백철기)이시 은 교수), △사회복지상담학과의 '아트심리분석사' (이미영 교수) 등 6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총 60여 명의 성인학습자가 K-미래인재대학 비학위과정 수료증을 취득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K-미래인재대학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광역지자체 연계형에 선정돼 2년간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인학습자를 위한 혁신적인 학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지난 7일 개강한 3차 비학위과정은 원활하게 운영중이며, 4월 27일 종료된다. 4차 비학위과정은 여름학기 에 모집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지난 21일 고창 청정유기농농업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농생대, 고창 유기농 낙농조합법인과 협약

법인, 농생명 분야 우수 인재 육성 500만원 장학금 기탁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추병길)은 지난 21일 고창 청정유기농 낙농농조합법인(대표 오금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기조사료 재배 및 유기원유 생산 사양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 등 지역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창 청정유기농낙농농조합법인은 농생명 분야 우수 인

재 육성에 써달라며 농생대 재학생들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추병길 농생대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 낙농산업의 발전과 농생대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국민 먹거리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초·중 8개교 등 총 17개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융합교육은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2개 이상의 학문 분야나 교과 지식, 개념 등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합교육 선도학교는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교원역량강화, 학습공동체·동아리 등을 운영, 그 성과를 인근 학교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7개교가 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중간컨설팅, 공개수업, 성과보고회,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융합교육 선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융합교육수업지원단을 모집해 교사별 연구활동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나눔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융합교육 인프라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역량강화 등 융합교육 선도학교가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지난 22일 대학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하이텍고등학교와 손을 맞잡고 지역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전북하이텍고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22일 대학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한천수)와 손을 맞잡고 지역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한천수 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우석대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중

지역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발전전략 수립 △교육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교육발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지식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